



#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1(2012)년 4월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 훌륭히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1(2012)년 1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 참석하시어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3(2014)년 2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2(2013)년 1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3(2014)년 4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4(2015)년 8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4(2015)년 5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4(2015)년 8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4(2015)년 9월



#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

열정적으로 (♩=120)

작사 차호근  
작곡 김운룡

1. 그 대는 기 - 폭 에 빛 나는 창조의 마 치 로  
 얼 마나 굳 - 건 한 초 석을 다 저 왔 던 가 - 일 심  
 단 결 반 석 - 우 에 강 국 의 기 동 을 세 워 인 민  
 의 락 원 을 펼 쳐 준 당 그 손 길 우 린 잡 고 사 내 네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인 민 을 향 도 하 - 여 위 대  
 한 이 조 선 빛 내 가 는 우리 당 영 원 히 따 르 리

2. 그대는 기폭에 빛나는 애국의 낮으로  
 얼마나 풍요한 열매를 가꾸었던가  
 사회주의 이 강산에 행복의 씨앗을 뿌려  
 번영을 안아온 고마운 당  
 그 뜻을 우린 꽃피우네

3. 그대는 기폭에 빛나는 예지의 북으로  
 얼마나 눈부신 미래를 설계하던가  
 온 세상에 부림없는 리상향을 그려주며  
 기적을 새기는 위대한 당  
 그 위업 우린 받든다네

라 인민을 향도하여  
 위대한 이 조선 빛내가는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 현 지 지 도 사 적 비 라 조 목 장 에 건 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도사적비 《만대해 길에 빛나라 라조기기의 새 력사여》가 라조목장에 건립되었다.

목장에는 우리 나라에서 라조기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목장의 과학화, 공업화, 사회주의 화를 빛나게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깃들었다.

목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복의 씨앗을 뿌려주신 아버지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일 총정의 일념을 안고 현연화강석을 정히 다듬어 현지도사적비를 건립하였다.

건공식이 8일에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목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건공식에 참가하였다.

건공사를 조선대양총회사 총사장 김옥남이 하였다.

연설자는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도사적비를 우리라는 우리모두는 라조가공업과 목장의 강화발전을 위해 천만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온갖 심혈을 기울여 이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인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 대규모라조목장을 건설할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목장에 여러차례 거룩한 자숙을 새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라조목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결사관철의 투사들이여 열렬한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며 특별감사까지

주시고 그들모두를 영광과 행복의 최정점에 올려 세워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라조목장이 당의 령도업적단위답게 훌륭히 꾸려지고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것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만년시련을 맞받아 헤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불변불휴의 로고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목장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목장을 종합적인 축산물생산기지로 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최단기간에

생산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일터와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수확화, 원림화를 더욱 다그쳐 목장을 선군시대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림으로써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건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현지도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듣고 비를 돌아보았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8년경축

###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8년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8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당장건기념탑, 개신문, 평양제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청년선화를 창조하며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펼쳐가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여 온 참가자들의 기쁨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우리 당이 창건된 10월의 환희를 노래한 《10월입니다》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도회를

이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수명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당, 선군혁명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된 조선로동당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돌이켜보며 춤물결을 일으켜나갔다.

열정에 넘쳐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가는 그들의 열광마당에는 우리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전위투사, 종업원들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불꽃을 억세게 틀어쥐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우승리를 앞당겨가는 열렬청춘들의 혁명적기백과 평만이 넘치는 《조국에 정손을 바쳐가리》, 《달려가자 미래로》, 《우리 앞날 밝다》를 비롯한 노래소리가 10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당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과 인민의 꿈을 이 땅에 활짝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의지를 안고 참가자들은 《인민의 나라》, 《당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살리》의 노래선율에

맞추어 춤물결을 이어나갔다.

《황금산마령》, 《꽃잎이》, 《올라리》 등의 경쾌한 노래선율이 무도회장들에 편이 울려 퍼지는 속에 무도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무도회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갈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소세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 령

제715호

주제104(2015)년 10월 8일

## 자강도 우시군에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지방예산제모범군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지방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봉사활동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을 잘 꾸리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모범을 보인 자강도 우시군에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 령

제716호

주제104(2015)년 10월 8일

## 황해북도 연탄군에 모범지방공업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력사적인 창성면석회의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는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체의 힘으로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고 지방의 원료원천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황해북도 연탄군에 모범지방공업군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8일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창건 70년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측과 해외동포가족과 외국손님들 꽃바구니 진정

백두산절세위인들에게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 세계건설을 위해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행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불멸의 살아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등의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조선로동당창건 70년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측과 해외동포가족과 외국손님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8일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창건 70년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측과 해외동포가족과 외국손님들 꽃바구니 진정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 세계건설을 위해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행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불멸의 살아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등의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 세계건설을 위해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행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불멸의 살아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등의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성원들

## 당 창건 기념탑 참관

조선로동당창건 70년에 즈음하여 조립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8일 당창건기념탑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

은 우리 당의 자랑찬 투쟁력사를 보여주는 기념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감명을 나타내었다.

조립된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창건기념탑은 조선로동당의

위대성과 불패성을 파시하는 력사적 기념비이다.

참관을 통하여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주석님을 모시어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갈것이다.

#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 사회정치학박사, 석사학위 수여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위수여위원회 결정들이 전달

된 다음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철을 열렬히 신봉하며 연구보급활동을 적극 벌리고있는 앙드레 로베르에게

과 선군정치연구학회 국제연합 《선군의 가치》 잡지 책임주필에게 사회정치학사학위 각각 수여되었다.

#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카데미야협주단

## 첫 공연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0년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카데미야협주단이 8일 문화예술극장에서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협주단은 당창건 일흔흔을 성대히 경축하는 우리 인민과 기쁨을 함께 하며 조로친선의 해인 올해를 뜻깊게 장식하기 위해 성의껏 준비한 중무대를 가지고 평양에 왔다.

박춘남문화상, 막명국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꾼들, 예술단체장, 예술인들, 예술교육부부 교원, 학생들, 평양시대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알렉산드르 마제코라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들, 주조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공연 무대에는 로씨야인민의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적정서가 짙은 노래와 무용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합창 《정의의 싸움》, 남성독창과 합창 《조선운전사의 노래》에서 지난 위대한 조국전쟁시기 파시즘의 침공으로부터 사랑하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결연히 일터였던 근대와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투쟁정신을 잘 형상화하였다.

영생 불멸의 혁명 송가들인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지자 관람자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로숙

보여주었다.

로씨야예술인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알려진 노래들인 훈성3중창과 합창 《까슈사》, 남성독창과 합창 《아무르강의 물결》, 《갈린카》를 비롯한 중무대를 무대에 펼쳐어 관객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최세의 천출위인인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을 격조높이 구가한 우리 나라 노래들은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정감으로 노래하는 신창자들과 합창가수들의 제인 안산분모 깊은 감명을 주며 관람객들은 예술단체의 면모를 잘

민족적풍습을 생동하게 반영한 무용 《까즈크춤》 등은 공연분위기를 더욱 이채롭게 하였다.

조로친선의 정이 뜨겁게 끓인 공연은 남성독창과 합창 《조선과 로씨야 영원한 벗들》로 끝났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년을 경축하여 로씨야예술인들이 펼친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이 전달되었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 조국의 북변땅에 울려 퍼진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

## 라선시 피해지역 주민들 새 집들에 입사

위대한 우리 당의 열화같은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력사가 끊임없이 흐르는 가운데 조국의 북변 라선땅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다.

라선시 선봉지구의 백학동에 1300여세대의 단층살림집들과 탁아소, 유치원, 종합편의봉사시설을 갖춘 옹근 하나의 주택구획이 멋지게 형성되고 정계동, 유현동, 관북동을 비롯한 여러곳에 500여세대의 소중, 단층살림집들이 준비하게 새로 일떠섰다.

지난 8월에 콘크리트 다단 피해를 입었던 이곳에 오늘과 같이 행복의 보금자리가 훌륭히 마련된것은 한없이 송고한 조국에, 인민애를 천심으로 지니시고 라선땅을 인민의 무궁도원으로 건설시키기 위해 머나 먼 하늘길, 평야, 배길을 달려 두차레나 뛰어오시어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결사판철하고야마는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라선시 선봉지구 주민들의 입사모임이 8일에 진행되었다. 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와 릉청만 라선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조정호 라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일꾼들, 라선시 선봉지구 인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배려하여 주신 살림집용증서를 박영식동지가 전달하였다.

모임에서는 릉청만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라선불장식사업소 로동자 박옥선, 라선시 백학농장 작업반장 안영길, 라선시 선봉지구인민병원 간호원 송옥실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선봉지구에 훌륭히 일떠선 살림집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와 송고한 사랑의 결정체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를 이어가며 만복을 누리게 될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

활안정에 그토록 마음쓰시며 력사에 전무후무한 피해복구전투 지휘사령부까지 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혜같은 사랑에 의하여 라선시 선봉지구에 전화위복의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북변땅을 몸소 찾으시어 살림집건설을 하루빨리 끝낼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건설자들을 위훈창조에 로고무해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집행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말해진 전투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7일 선봉지구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새 집들을 친어머님처럼 돌아보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사랑과 은정이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한낱한 시에 새 집에 입사하는 경사를 맞이하여 라선땅에는 사회주의 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어 새 집에 입사하는 경사를 맞이하여 라선땅에는 사회주의 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당의 사랑속에 마련된 살림집들을 알뜰히 관리하며 새로 일떠선 마을과 주변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더 잘 꾸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당의 사랑속에 마련된 살림집들을 알뜰히 관리하며 새로 일떠선 마을과 주변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더 잘 꾸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이 땅에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의 강성국가, 인민의 지상낙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몸 바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라선시 선봉지구에 새집들이경사가 있었다. 온정어린 액셀레비존과 벽장들이 갖추어진 살림방들, 찬장마다 가득한 각종 경결유리그릇들과 여러개의 가마들이 설치된 부엌, 그들그들 쌓여있는 쌀감들과 미밭에서 푸르싱싱한 잎새를 펼친 남새들.

너무도 꿈만 같은 현실앞에서 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며 주민들은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준 당의 은덕에 솟구치는 격정을 감지 못하였다.

꽃밖의 재난을 당한 때로부터 날에날마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근심걱정없이 생활해오던 그들은 모든 생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희한한 별천지, 불수룩 멧있는 새 살림집을 받아안고 흐르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며 로동당만세, 사회주의 만세를 소리높이 외쳤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들리시었던 집에 입사한 선봉수산업소 어로공 박영철은 다음과 같이 격정을 터뜨렸다.

세상에 사람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온정어린 이보다 더 큰 은정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갑자기 들이닥친 콘크리트 정든 보금자리와 가산을 다 잃고 한 자리에 나앉았던 우리들에게 온정어린 식보품들과 부엌세간 등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보내 주시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생활하도록 친어머님의 사랑들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이 이렇게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시니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할지 눈물만 솟구친다.

길지 않은 나날을 통하여 나와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굳건히 다져진 억척불변의 신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그 어떤 시련도 난관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진정한 은나라 인민이 안겨사는 은혜로운 사랑의 품, 위대한 태양의 품이다.

선봉지구 서포항교중학교 교원 리경수는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은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셔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당에 대한 믿음과 지킴의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온갖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어머니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과 의리로 보답하는 것은 천만민민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말은 혁명임무수행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갈 결의를 굳게 다지었다.

어찌 이들을뿐이겠는가. 집집마다에서 울려나오는 감사의 인사,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정녕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사는 태양의 품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인민사랑의 가장 위대한 품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이날 새집들이의 기쁨과 감격속에 노태부르며 춤을 추는 주민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품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있는 한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굳건히 지켜지고 이날이 꽃날것이라는 굳은 확신과 대를 이어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같은 열의가 넘쳐흐르고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국제축구연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지역예선 2단계 우리 나라 팀과 필리핀팀사이의 1차경기 진행

국제축구연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지역예선 2단계 우리 나라 팀과 필리핀팀사이의 1차경기가 8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시작된 2단계경기는 40개 나라와 지역

의 팀들이 8개 조로 나뉘어 편별전의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경기장에 나선 우리 팀 선수들은 전반전에 김일현편락에 의한 차넣기와 발차기 등으로 상대팀편전을 거듭 위협하였다.

후반전에 들어와 우리 선수들은 공격속도를 계속 높였으나 상대팀의 완강한 방어로 득점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이날 경기는 0:0으로 끝났다.

우리 나라 팀은 13일 예멘팀과 조별편별전 2차경기를 하게 된다.

###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대표단 도착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 및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 대표단이 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 리사회장 김창모가 맞이하였다.

###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구고사상원가족일행과 제중항일

1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조나 혼공동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혁명투사 리제덕가족일행, 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해외연고자 손원태가족이

### 재중동포대표단들 도착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제1부회장을 단장으로 하

###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외국 손님들 도착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안드레이 표도르프 로씨야 정치연구 및 상담센터 기금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친선대표단, 조선해방 70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도이힐란드연방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협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이고르 유리시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대표단, 파프릭 무엔즈만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 이리나 말렌코를 단장으로 하는 아일랜드조선친선협회대표단, 씨국협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싱가포르조선교류회

### 해외연고자가족들 도착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제1부회장을 단장으로 하

### 방글라데쉬와 영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를 도착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셰이크 라피크 이슬람 바블루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글라데

### 슈주제사상연구소대표단, 대표를 도착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슈주제사상연구소대표단, 대표를 도착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대표단,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구고사상원가족일행, 재중동포대표단, 해외연고자손원태가족,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대표단, 중국 단둥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 방글라데쉬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영국주체사상연구소위원장

#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영웅 청년 신화

## 성스러운 백두전구에 영웅 불멸할 청춘대기념비를 세운

우리는 지금 백두고원의 침엽수림을 가로 지르며 거대한 성벽만양 우뚝 솟아오른 백두산영웅청년 1호발전소 연제우에 서있다. 지난 9월 13일,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푸른 산, 푸른 물, 푸른 하늘이 맞닿았던 같은 바로 이 자리, 이렇게 정춘산의 정상에서 여기에 올라 서면 그 누구이든 백두산 철로 뱃머리를 뚫고 올라가서 백두산 캄바람에 옷을 입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헌명의 침로 0.7km 폭풍처 대탈리는 백두산영웅청년들의 영웅적기사와 위훈(0.7)라고 격정에 넘쳐 서를 읊고있다.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의 비문과도 같은 그 뜻깊은 시구절을 머 리하고 살아 오늘 우리는 백두고원의 검푸 른 대인공호수에 붓을 적씩 청년들격대원 들의 피땀자욱이 력력한 이 만년언제벽에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낳은 또 한편의 정춘 서사시를 삼가 새긴다.

### 죽어도 그 믿음 버리지 말자!

백두산영웅청년 1호발전소 연제우에 서 면 제일먼저 한눈에 안겨오는 거대한 글밭 들이다.

《청년중시사 낭독!》 한개의 높이가 무려 8m를 넘고 무게가 100t에 달한다는 영구조성대 세끼 이 글밭들은 청년들격대원들이 연제우산간 공을 위한 최후결사전을 벌리던 지난 8월 초에 세운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유명 구호는 발전소건설의 최장기기에 이미 격 대원들의 심장에서 뿌려내렸었다.

천수물에 청년들격대원의 붉은 기발이 처음 휘날리던 그때로부터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봄이든 일출대명단 제일 앞자리에는 건설초기에 입대하여 오늘까지 10년을 넘긴 구대원들의 이름이 새겨져있다. 돌격대 참모부 부장장 전준길, 정치부 지 도인 박종문, 평안북도리단장 박민근, 함경 남도리단장 김철풍, 평안북도리단장 손준 철, 황해북도리단장 정지부장 김철수, 평양시 리단장 4세대 대원 박정훈...

첫돌잔치도 사선으로 단 밧뚱 났던 어린 아 들이 어저께 열살이 된 총각으로 자랐다. 30대의 청년동맹일군이 이제는 미혼을 넘긴 중년남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10여년세월 여기 심심 산골 백두의 임혹한 풍토대에서 한층 또 한층 인격을 쌓고 km도 안 톨 물결을 뚫으며 오늘도 청년들격대원으로 일하고있다.

기술수에 항상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의 사연을 품고있는 황해북도리단장 정치부장 김철수동무. 무려 250명이 넘는 청년들 격대원들의 입당보증을 썼다는 돌격대의 오랜 정치일군인 리단의 수장은 교대인원 들을 맡고 보내면서도 돼 여직을 잊고 남 이 있었든가 혹은 우리의 믿음에 잠시 끊 어 생애에 잠겨져도 이렇게 단념했다.

《인생애문이지요, 장군님의 믿음 그리고 저를 여기 백두산으로 보내주며 완공의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당부하던 사랑하는 사람 들의 믿음애 글이 있었나.》

최고사령관의 발포대인 청년들을 만기 에 인건군내 나카에 맡겨줄 줄도 있는 발전 소건설을 청년동맹에 쫓겨도 맡기겠다고 하 신 그 뜻깊은 말을, 우리 청년들은 그 어린 년만이 앓을 거대라도 발전소를 훌륭 하게 건설하고야말겠다고 하신 그 뜻을 믿음은 언제의 기조를 박기 전에 심고 언 지 든든히 새겨주고 청춘들은 10여년 세월에 곁잡혔다, 빈항안이 싸워냈다.

《백두산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이 새겨진 돌 격대의 붉은 기발을 세대를 이어 역세켜 필 려며 그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겠, 조건이 좋든 나쁘든 손을 내밀지 않고 조곤 조 곤과 고난을 제철으로 헤쳐왔다.

어려운 나라현전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청년들격대원들이었기에 거니 나 밋어있던 세멘트 공장에서의 힘으로 현대화하여 공사 에 필요한 자재들을 생산하고 정춘 산의 피눈은 심장으로 쇠를 훔쳐 강재를 뽑 아내고 《조선청년전위》를 조직기관차로 만 들은 공산정당으로 잇닿은 두세대 케도를 올려세웠다.

10년이란 청춘시절의 거의 전부라고도 말 할수 있다. 날마다 꿈이 달라고 해마다 로부 가 커지는 청춘의 그 10년을 북방의 동토대 에서 발전소건설에 바쳤다고 하면 아마도 사 치와 향락을 청춘의 전후로 여기는 자본주의 나라 청년들은 믿으려고도 안할것이다.

겉간한 의지를 가지고서는 한해도 견디어 내기 힘든 백두의 임혹한 겨울을 열면이나 안고 보면 그 나날에 얼어있어 왔다는 건 투가 어느때든가고 불어오른 돌격대의 구 대원들은 2010년 1월에 있었던 발전소 비수충전투를 눈시울까지마 주며 승리한 날다.

청진항에 발전설비들이 도착하였을 때였다. 거기에서 백두고원의 발전소건설장까지 는 무려 650여리나 되었다. 한개의 무게 가 수십이나 나가는 육중한 발전설비를 그 것도 공기조차 얼어붙는다는 백두대지의 가장 임혹한 겨울철인 1월에 이혼아용공이 차용됨과 같했, 삼천리를 비롯하여 푸른 얼음이 깔린 산세협한 명길들을 극복하 며 안락하게 운반한다는것은 상상하기도 초 아 어려운 일이었다. 자그마한 바지를 끌고 올 운한다면 허는 길이며 프락 아니던 이 려도 없다는 목소리로 울려나왔다.

백두대지의 땅들이 녹기를 기다리다면 5월 에 들어가서야 발전설비들을 운반할수 있겠 고 그렇게 되면 발전소조조업이 반년이나 늦어진다. 한해 또 한해 어떤 괴담의 대가로 당국은 조조업인데 반년씩이나 미루다니... 전제 돌격대가 펼쳐나왔다.

650여리길을 수십리씩 떠날때마다 갈라 달고 포행이와 정대로 얼음길과 고개 넘어는 땅을 파헤쳐 모래와 쇠비계를 마대로 매 달라 갈우에 뿌렸다. 650여리 구간에 길다 란 피터펄려진 최한한 한겨울의 흙길을 청춘과 무뎠, 무산과 대홍단, 백담의 두만강 은 놀라운 눈길로 비바되었다. 그 길로 현대 화물자동차와 변질대차로 이어진 산길은 수 송대가 천천히 움직여갔다. 만약의 경우 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백두대지에 뿌린 청춘들의 애국충정 의 땀방울을 담과 조국과 인민은 영원 토록 기억할것입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환풍은 조선로 동당장전 일훈동지 대추권을 뜻깊게 장식하 는데만 그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다. 백두전 구에 솟아오른 청년발전소는 창당 첫시기 부터 장기성을 띠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최후대, 익숙부 대로 억척같이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들 과 우리 당의 명도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보여 주는 힘있는 파시인 동시에 그 자랑스럽 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백두산대국의 후손 만대에 길이길이 전할 기념비이다.

사람들이여,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조선의 청년장군의 앞길 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보려면 누구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와보시라!

처녀리는 수송차들을 육박이 되어 제공사길 겹사의 각오를 안은 돌격대원들이 버팀목을 메고 자동차행렬과 함께 전진하였다.

“-30℃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 청진항 을 출발한 수송대는 백수리리 로신을 통과 하여 이혼아용공이 차용됨을 극복하였고 힘 준한 청년들의 감행을 기적적으로 넘어섰다.

그러나 백두대지에 들어서는 문어귀에 서있는 삼천령은 이들의 신념과 의지를 시험 하려는듯 무겁게 도전해나왔다. 험한 명 길들을 돌아오르던 변질대차가 굽이굽이 서 갑자기 지치지 시작하였다. 미처 어떻게 든 이 뒤로 밀리는 변질대차후에서 방울이 고 정지했던 육중한 최후대가 기우뚱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더니 그만 산비탈에서 미끄러 져 눈두지속에 관두박히고말았다.

내루도 뜻밖의 사태앞에 돌격대지휘관들 과 대원들모두가 가슴을 치고 처녀들은 발 을 뚫으며 우음을 띠드렸다.

이제 어떤 설비라고! 대안의 로동자급 이 결사관철의 낮과 밤을 바쳐 만들어냈고 싸우던 신원들이 풍랑사나온 거센바다와 싸우며 저 멀리서 서해와 남해를 에둘러 날라 는 귀중한 발전설비가 아닌가!

어기 막혀 서있는 돌격대원들앞으로 지 휘관이 나섰다.

《두루뭉스! 이 길은 백두산으로 가는 길 이다. 장군님께로 가는 길이다. 변질차를 들 수 없다면 그림을 파고 길을 내어 자동차를 뚫어내자, 가자, 백두산으로!》

대에는 다시 일어났다. 빨색산들이 부르던 혁명가요의 노래소리가 저절로 합창으로 번져갔다.

혹한과 눈보라속에서 얼어붙은 산맥을 깨고도 최후대가 떨어내린 신비한막다른 길 을 내어 변질대차를 끌어내며 한 마리 가멸 한 전투가 벌어졌다. 함파와 정대로 한창한 절 얼어붙은 흙과 바위를 뜯어내며 천천히 처 열어제진 수백m의 산길, 그것은 자연과 인공력의 대결이기 전에 불가능과 신념간의 치열한 결이였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꼬박 이틀간의 전투 끝에 기어이 열어놓은 산길로 변질대차들 들이대고 최후대를 올려리신 순간 돌격대 원들은 저도 모르게 만세의 함성을 목격했 던것이었다. 다시 전진하는 함성대결에서 처녀 돌격대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다.

《0.7에 깨십시오! 그이름 장군님!》 노래 를, 백두산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고있던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어린 고신을 전갈함을 때마다 현양하늘을 우리로 목매어 부르던 하던 노래였다.

어제처럼 그 노래가 절로 울려나오더라고, 처녀들만이 아니라 사내대장부들도 언 주 먹으로 숨쉬는 것은 눈물을 닦았다는 돌격 대원들의 추억에 우리도 그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져왔다.

모퉁간의 그밭들에 꿩볼로 길을 걸어어 수송대와 함께 꼬박기 수백리길을 걸으며 심한 통상까지 입은 돌격대원들도 있었다. 미 끄러지는 발전설비를 구원하다가 숨진 꽃 같은 강호원친처도 있었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을, 청춘시절이 아니라 한생을 다 바친다 해도 땅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결사의 각오로 협준한 백두전 역에 든든히 뿌리를 박고 《백두산》돌격대 의 붉은 기발을 끌고오며 자신들 그들의 모습을 어느 한순간에 묻혀도 푸름을 잃지 않는 역설 소나마에 비기지 않을수 있리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지만 백두의 설한천정에서 10여년세월 완강하게 싸우고있는 청년들을 당중심의 순간도 잊은적 없었다.

지난 4월 20일, 백두산의 청년발전소 건설항을 찾으신 김정은 원수님의 혁명 활동소식과 새로 나온 노래 《거리라 백두산 으로!》가 실린 《로동신문》은 온 나라에 울 리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팔비탐취 운작을 아무관제보시듯 한걸음 또 한걸음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경경을 금지 못하 하시며 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건설 장에 와보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발전소건설을 얼마나 중요시 하 한다고 외국방문을 마친신 길로 불려나신 몸이였지만 이런 산세협한 까짜지 찾아오 신것은정말로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오다니 그 그의 용성이 있어들 때 돌격대지휘관들 은 그런 목이 짝 매어 머리를 숙였다.

이윽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시 었다.

이런 험한 곳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혹 한속에서 거장한 대장건설을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 들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건설에서 발현한 청년들격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볼도 없는 청년장군이라는것을 힘있게 과시하는것으로 됩니다!

《감ље에 언데우같은 돌격대지휘관들을 참고하던 눈물을 더지고야말았다.

그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 발전소건설 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 주겠다고 하시며 전당적, 전국적, 전사회적 으로 발전소건설을 도와줄데 대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백두고원의 천수물같이 화산이 터지듯 무겁게 전진했다.

백두산기슭의 청년발전소건설을 당과 국가의 최중대사로 보내워준 당중앙의 믿음 에 청년들은 당장전 일훈동까지 무조건 발전소건설을 끝내겠다는 결사의 맹세로 부화했다.《거리라 백두산으로!》노래를 부르며 수천명의 청년들이 발전소건설장 으로 탄원해왔고 진당, 전국이 지원물자를 시고 1,000리, 2,000리를 달리고 달려 백두산의 청년들격대를 찾아왔다. 최고사령부의 군인협동작전의 설계도를 안고 인민군에도 전진하였다.

쏟아져내리는 함박눈이 세멘트가 될수 없었고 가던 돌격대원들의 그 간절할 소 원을 하늘이 아니라 우리 원수님께서 풀어 주시여 발전소건설의 생명수와도 같은 수만의 세멘트가 배길, 철길, 자동차길로 줄줄이 도착하였다.

10년동안에 한 작업량보다 더 많은 일 감을 단 몇달동안에 해해기겠다고 펼쳐나 신 청년들격대원들의 결사전을 온 나라가 놀라운 눈길로 지켜보았다. 자재와 설비를 다 보강해준다고 해도, 발전소건설의 실패 들을 놓고 따져보아도 사실상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당중앙은 미더운 시선으로 백두천수물의 발전소건설상황을 매일, 매 시각 지켜보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인데, 당장전 일훈동 대추권에게 백두산의 청년 들을 자랑스럽게 내세워주셨고있신 용성길 는 마음이 청년들격대의 투쟁을 걸음걸음 힘껏 떠밀어 주셨었다.

기적어에 신화라고 있다. 불가능한 일것을 기적이라 한다면 인간이 해낼수 없는 일을 두고 신화라고 한다.

청년들격대원들은 120여일의 격전끝 에 끝끝내 당중앙 승리의 보고를 드림으 로써 우리 나라 발전소건설사업에 이니 우리 당역사에 특기할 백두산의 영웅청년시 화를 창조하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격전의 전리투를 당의 믿음어린 조선청년들 은 키워

### 선열들의 붉은 피 스민 백두대지우에

백두산영웅청년 1호발전소는 백두고원에 위치한 백담군 천수물동지구에 자리잡고있 다.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천수리는 지명은 한해에 흰눈이 내리다 내린다는데로 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남재가 맑을 때 언덕 북쪽의 해발 1,200m정도의 산고지에 오르면 포대산이 우 멋이 바라보인다. 이곳 풍자정은 북방특색 의 임혹한 추위와 난 날씨가 6개월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하여 풍로트지가 많수 있는 기간이 한해의 3과 5개월정도의다. 게다가 천수라는 그 지명도 본격적적인 공사철에는 비가 하루에도 여러차례 내음이 내려 서우를 범람하게 하기도 하고 일대 를 온통 전장천지로 만어내리기도 한다.

여기에서 해산까지는 무로로 3000 리, 가장 가까운 철도역인 백담정역까지만 해도 250리가 넘는 수송조건으로 하여 발전 설비들은 우리 나라 수백발전소건설사업 상 가장 불리한 자연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공사대상이다.

더우기 연공공사기 시작되었던 2000 년대 중엽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인우들의 반공화국교림살해행동과 경제붕괴의 도가 두 극우 악당의 맹렬한 시기와였다. 제일 안 띠까운것은 어려운 나라사정상으로 하여 세멘 트가 거의나 보양되지 못하여 연공공사를 마유먹은대로 내밀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청년들격대원들은 당장전 일훈동 이 된다는 뜻을 옹해하여 지난 10년간 그 처럼 바라면서도 이루지 못하였던 발전소 완공이라는 말그대로 신화와 같은 승려를 따모아인 자기들의 투쟁으로 이룩하였다.

백두고원의 침엽수림을 가로지르며 우뚝 솟아오른 언덕은 물리적으로도 하나의 거 대한 풍로트구조물이다. 하지만 함입선철 활동소식과 새로 나온 노래 《거리라 백두산 으로!》가 실린 《로동신문》은 온 나라에 울 리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팔비탐취 운작을 아무관제보시듯 한걸음 또 한걸음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경경을 금지 못하 하시며 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건설 장에 와보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발전소건설을 얼마나 중요시 하 한다고 외국방문을 마친신 길로 불려나신 몸이였지만 이런 산세협한 까짜지 찾아오 신것은정말로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오다니 그 그의 용성이 있어들 때 돌격대지휘관들 은 그런 목이 짝 매어 머리를 숙였다.

지수도 든다는 신화로 증명하였다.

4월 19일,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발전 소건설장에 찾아오셨던 그날을 무로 여기 청년들은 자기들의 돌격대가 두드나기 태 어난 날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울은 말이 다. 4월 19일은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별동대인 500인 청년대중에서 가장 정예로운 군부대가 탄생한 날로 역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참 훌륭한 구호입니다. 믿음이 어떤 기적을 낳 고 신념이 어떤 신화를 창조하는가를 빨색 산화사기보단 학습하던 우리가 바로 그 주 인공이 될출은 상상도 못했습니다.》라고 절절히 말하던 돌격대 대장 김성민동무의 구리빛얼굴이 흐지저저 없었다.

결모습만 보면 사회주의건설장 어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청년일군이였다. 그러나 언데우에 거친이 서서 천수물같은 말발에 굶어있는 믿음이고 그 몸뚱이 그 모습은 사령부의 공경화살표가 되어 항일 전장을 순회무진하며 인우들을 발발 열게 하던 빨색산의 청년들격대원의 모습처럼 우리 에도 생겨났다.

아, 우리 당의 붉은 열마니 위대했인가! 신화를 낳은 신병.

그들은 시련과 고난이 천겁만겹 가로막 아도 환풍의 날은 반드시 오리라는 필성의 신 심이었고 그 장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정신이 되리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었다. 바로 그 철석같은 신념을 우리 장군님과 원수님의 청년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세계가 백두산안미처럼 떠받들고있었다.

《마안산》을 보며 보자시던 장군님 사람 으로! 마안과 장호도 안겨주신 장군님 손길로 바타마 이 산물에게 화귀한 수산물 도 실어보내주시 우리 원수님의 그 건정성을 돌격대원 눈군들 눈에 흠이 들어간것 잊을 연가.

백두산에서 창조된 새세대의 영웅청년신화, 그것은 조선로동당과 우리 청년들이 어떤 관제간가, 그 위대한 혼연이세의 력사가 무엇이든 원력으로, 투력으로 하여 《그렇듯 줄 기차재 호르고있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그것은 지시와 정령으로 이어지는 관제이기 전에 어떤 이롭고 힘든 일을 주저없이 맡겨주는 신념, 기꺼이 발아 안고 목숨걸고 해내는 의리의 판적이며 멀 리 있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진하고 열렬해지는 어버이와 자식간의 절정의 정정 이다.

바로 이 백두산기슭에서 우리 청년들은 빨색산의 마안산으로이겨, 한눈의 미지가 무로이아기를 자신의 실패함으로 겪었고 《열 승의 신병》, 《불사사》와 같은 빨색산의 화강 시를 자기들의 피어린 열혈로써 청춘의 자서전에 새겨넣었다. 백두산은 자기의 순 결한 혈통을 이은 또 한세대의 청년정당들 을 키워 위대한 시대앞에 떼땀이 내세웠다.

### 며 전진하는 그들은 다음이던 황해북도리 단 돌격대원들이었다.

필멸제 항쟁복도의 외진 산골에서 공사에 필요한 제비알자연을 진행하던 리단에서 시급이 1호발전소 연제와안 풍로트리단공사장에 진출할때 대한 전투명령이 하달되었다.

백담군 천수물까지는 차질로 수백리, 지하부에서 보내준 운수기계에에만 의존해서 차질을 따라 떠날전일이 서거하자면 철첩 이 한주일이 걸려야 했다. 산길을 타고 직 선으로 걸어가면 이틀!!

사령부나탈소리가 울렸을 때 빨색산들이 자동차를 타고 한주일을 애들어갔겠는가. 리단 폭풍!

리단 참모실 리단주, 정치부 부장주 절 송동무등이 이런 불같은 호소로 청년들격 대원들을 한사발잡이 호명하였었다. 작업공 구들과 리단의 크고작은 짐들은 화물자동 차로 실어보내고 돌격대원들은 천수물까지 도로에 버렸다. 백담군상에서 수백리정도 기러를 에우며 이혼아용 강행군을 들이대 어 새로운 투쟁지를 차지한 그들은 수송 건설용공제로 뒤늦게부터 만들어졌고 배낭을 찰기 전에 많은 구간의 연제와안풍로트지 고기에 돌입하였다.

돌격대의 가장 전투력있는 리단들이 1호발전소 연제와안까지, 황해북도리 단 풍로트리단까지의 구한이였다. 풍로트리 단인양을 청년들격대의 전투날짜와 리단의 인원은 천수물과 리단면 하우풍로트지기 량이 결정되었고 그것이 곧 전투명령으로 하달되었다.

지난 10년간의 작업량을 훨씬 통과 하는 엄청난 전투의열을 놓고 할수 있는가 없 는가 라는 또는 여담도 없었다.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주쳐주었겠는가, 오직 그 하나에 전제 돌격대의 사색과 의, 힘과 열정이 집중되었다. 여기서부터 이 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영등하고 기 발한 창의고안, 기술혁신인들이 쏟아져나오 고 내담하라는 말을 히궁 뛰어넘어 상상사 도 뒤집어엿은 착상들이 나오고 지체없이 실현되었다.

1만m²이상의 타입향을 맡은 함경남도리 단 청년들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전투의 순 간순간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전쟁이었다. 모든것이 시간, 시간을 쫓아가기 위한데로 일 타업을 진행할수 있는 방도를 내놓았다. 한쪽에서는 통나무를 마련하는 전투가 벌어지고 다른쪽에서는 화물제작부, 철근 가공제작부가 진행되었다. 그런 청춘들이 리 단은 현상일전투에 진입하였다.

지휘관도 전투현도 휘사할때까지도 모두 다 두배, 세배의 일감을 안고 뛰고 또 뛰어 다. 리단의 주간과일실정은 종전의 2배로

경쟁 뛰어올랐고 첫날 전투목표를 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교대시 간에 1인당 3t, 이것은 리단이 맡은 우안 지지대타입이 마지막단계에서 진행되던 지 단 7월 기록수처녀의 수첩에 오른 이곳 청 년들격대원들의 평균폭재운반량이다.

폭재를 담은 수십kg의 마대를 메고 갑자기 자로 썬인 100m 길이의 정사굴한 발 판을 오르내리느라던 온몸은 땀으로 물든 머리가 되었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지금은 100kg짜리 바위도 울렁 들러대힐 힘장 사로 지한 황해남도리단의 열일급, 열어업 의 에어린 청년들격대원들은 자기들의 잔 매가 바로 그때에 무죄처럼 단단하게 굳어 졌다고, 리단면벌름정기가 있다면 자기들이 신수로 나가 황해남도의 본대를 보냈었다 구 우스개소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였 다. 얼얼한 보아서는 들뜬같이 아련하던 씩, 중앙기관대녀 녀소대 처녀들이 이름 드리운후루를 훌쩍 들러메고 《어섯사!》 라고 히궁 냐다뜻는것을 보고 감짝 눈물짓 고 울었다!

청명! 싸우는 고지의 혈액을 이어준 전 회의 청명! 여기 백담양에도 있었다.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용자재들과 설비들 의 수송속도이자 곧 언제가 높아지는 속도 였다. 돌격대의 운전사들모두가 청명의 수 송전사처럼 분사신간이 싸웠다.

복과 석달 남짓한 기간에 평균주행거리 2천km이상, 회고 2만 5,000km를 타! 이것은 당의 온정속에 마련된 대화화를 리중차를 직접 끌고 신의주를 떠나 수천 리길을 달려 지난 5월 중순 발전소건설장 에 도착한 수도청년들격대리도 운수대로 리의 15명 운전사들이 물물수송률로 이어온 거리이다. 이곳 정치일군의 말을 따 르면 지난간 여려 대상건설에 참가한 이 들의 경우에도 이만한 주행거리를 달러자 면 보통 3년정도 걸린다고 한다.

3년과 석달, 1년을 한달로 주름잡으며 백두전역의 격진전선 연제건설장으로 폭재와 세멘트를 싣고 달려오 또 달린 그들의 위훈을 전하 는 수자들이였다.

가장 긴장한 수송전투를 벌리던 지난 6월의 나날, 유령지구의 밤과장거지 하루 10량 물자를 내건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 잠잠치는 불과 2시간정도로밖에 쉼이없어 있었다. 교대운전자들이 미처 도착하지 못한 조건에서 왕복 100리길을 10번 달려오자 단 차에서 내려 갈라 허리를 펼 어놓아차 없었다. 하루 두끼 식사는 차안에서, 똑같은 골재장에서 사창운서를 기다리는 10분정 도도 그적이였다. 밤이든 파드쳐 밀려오는 추움을 쫓는다 올행도중 차를 세우고 서두 수의 찬물로 정신을 가다듬곤 하였다.

육체적한계를 초월한 강인한 정신력으로 군 한없이 끝내수송전투를 뒤임없이 벌린 김영남, 유영수, 리정, 김성철, 허성철등이 무른 비롯한 운전사들의 헌신적투쟁을 떠나 6월과 7월 파우안연제우에서 현이 더친 승리의 함성을 울려 생각할수 있리라.

황강도리단은 백담청년대에 현이 도착 한 세멘트를 좁은철길용화차와 화물자동 차들에 이적하고 좁은철길을 통해 수송된 세 멘트를 굴용역에서 화물자동차들에 옮겨지 는 가장 어려운 전투를 스스로 맡아나섰다.

우리도 백두산을 지키는 황강도리의 아들 딸이 아니라, 주인공 우리가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나서자!

120여일 격전의 나날에 5만t이상의 세멘트50차리를 위하여 황강도리단의 청년 들이 백담청년대에 굴용역에서 벌린 철야 전투를 무슨 담과 갈로 여기에 다 옮길 수 있리라. 언제와 물결같은 비록 그들의 부활자욱이 새겨지지 않았어도 그들이 흘린 구슬같은 땀방울은 백두전역의 수백여리 에영히 지지 않는 붉은 철꽃땀떨기처럼 정 점이 돌출이였다.

지난 9월 발전소건설장에 찾아오시었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호발전소의 언 제와 물결같이 무심히 불어 불었다고 하시며 서 후한속에서 자연과의 전쟁을 벌린 청년 들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구 가슴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만류도 마다하고도 완공된 물결길일구까지 걸어 오신 그이께서는 이는는 들어가불수 없게 된 물결길앞에서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그 보지 않는 격진전의 주인공들이 바로 평안북도리단과 함경북도리단의 돌격대원 들이였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다가나신 후 정찬 복도와 함경북도리단에서는 정대와 함파, 세멘트도가 아니라 사형선들의 의 지와 괴담으로 붉은 물결길앞에서, 이계 물에 잠기던 누구도 알지 못한 자기들의 창조노 래를 그토록 오래동안 시계시마 격정을 누출고 없이어는 원수님이 너무 고마워 물 결길피복원공의 그날처럼 또다시 만세를 목매어 꿰뚫었다고 한다.

《연제우에 휘날리는 기발은 어디서나 보이

### 백두청춘대학 졸업증을 안고 살라

사람들은 흔히 청춘시절의 고생은 금주 해도 산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 백두대지의 발전소 건설장에서 제법을 천금을 주고도 못 살 면다. 백두산의 가장 귀중한 인성재부 라고 말하고있다. 그대 진정 위대 한 김정은시대 청춘의 자격증을 간직하기를 바란다. 무공토록 반영할 청년장군의 주인공의 징표로 갖추기를 바란다. 백두산의 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오시라. 여기와서 그대의 심장에 붉은 모든것을 거울처럼 비추어보시라.

여기서 우리는 구대여 리단과 대대, 소 대들마다 하나같이 똑같은 항일유격대의 병설들과 일본생, 생활기공에 대한 이 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백두산살마 땅이 인간을, 청춘을 어떻게 키워내는가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몇가지만을 하려고 한다.

평안북도리단에서 우리는 두개의 졸업증 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나 이 땅속물길끝에 꽃인 붉은기를 본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나무팡까지 만들고 들가부쉬인 언 밤을 씌우면 원수님께로 가는 길을 열거고 헤쳐던 그 함성, 판로의 남에 함성하던 노래소리의 메아리를 우리 원수님께서 심장으로 들어주셨다고 생각 하니...

2호발전소의 물결길앞에 우리와 함께 섰던 평안북도리단 리단장 박민근동무는 더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와 함께 우리도 기억비거 없는 격진전의 주인공들을 추억 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런 120여일의 초인간적인 격진끝에 청년들격대원들은 드디어 자기들이 맡은 연 150m 길이의 언제를 당앞에 걸다자 었던 청년철날자보다 근 40일이 앞당 겨 우뚝 울려서우고요말았다. 총천한 그 시 세로 그들은 건문건설단위가 많은 이처럼 연제부분을 과반과 우안에 협공하는 련 수송전선에 다시금 총돌았었다. 초기계획 에 비하여 1만 2,000m이상의 풍로트 리단을 더 진행함으로써 기적을 초월한 신화를 창조하였다.

청년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드디어 1호발전소 연제풍로트리 단입을 연속하는 력사적인 시각이 다가왔다. 휘사준을, 현상치로현행까지도 다 열쳐나 왔다. 격전의 나날에 맺힌듯이 나 목이 쉬었던 바송원들의 습가본 체침은 벌새부러 눈 물에 젖었다.

수천명이 일시에 터치는 만세의 함성에 언제가 드르릉 울려나갔던 깔고 서두수의 물결이 격랑처럼 뚝뚝하였다. 울고불고 꽃장성 을 한 혼혈물바가지들이 천천히 울러오리 나 10여년만에 처음으로 혼합물이 아니 라 꽃보라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꽃보라 가 쏟아져나왔다. 취재기에 건설장을 많이 다 다니면 우리도 그처럼 황홀하고 그윽 듯 많은 꽃보라는 처음 보았다. 연제와안과 연제하류의 드넓은 공지에 벼국이 모여서 서 일석이고 만세를 부르며 청춘을 울리는 백두청춘들의 머리우로 조국이 뿌리는 축 하의 꽃보라가 쏟아져내렸다.

청년들격대원들이여, 한생토록 잊을수 없 는 그밖에 그대들이 아끼내린 연제우에서 서서 만세로 함께 불렀었던 그대의 강위를 그대로 갈로 다 닦지 못하는 우리를 부디 용서하시라.

9월의 그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연제우를 거시면서 울려다보던 하늘끝에 서서 우리들격대원의 기상을 보냈었던 같고 멀리서 보면 당중앙을 윤행하는 성세, 방패 를 이룬 청년대군의 모습을 보냈었던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한마디한마디에 천만분의 무게가 담긴 금언같은 그 말씀의 에 세상 울흔한 시기가 있다한들 우리 더 무슨 구절을 덧붙이랴.

우리 당역사에 특기할 2015년 10월 3일, 중공주요의 그밭에 당서는 백두산영 웅청년들격대원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뜻깊은 축포를 여기 발전소 건설공구의 하늘가에 터쳐주었다.

발전소중공식을 축포로 경축했다고 들 들어본적 있었었다. 자기들의 수고가 전승 용사들의 위훈처럼 축포로 빛나게 되리라 고 청년들격대원들 상상이나 했는가.

당과 조국과 인민은 영원토록 기꺼이하 라는 금언은 백두의 하늘에 영원한 별무로 도 새겨놓는 우리들 수초와 더불어 청년들 격대원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격정의 한호, 눈물없는 목소리—축포여 너는 용사 를 닮을 빛났을 뿐리, 축포여 너는 용사 를 위훈 새기는 훈장예였다...

청춘들격대원들은 자기들과 함께 승리의 축포를 바라보고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을 무르려모 목매어 꿰뚫었다.

이런 고담고 위대한 당을 위하여, 우리의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무엇을 주저하라, 무엇을 서슴라! 경에하는 김정은동지 만세! 김정은동지시요! ...

지난 세기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에서는 북방의 처녀처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굴 지의 수력발전소를 일대세운 풍

# 조선로동당이 낳은 또 하나의 청춘서사시

##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투쟁실록을 펼쳐 고

6번에서 계속

그렇다.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이야말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 인생관과 생활관을 낱알이 검증하고 강철로 버려주는 최고의 시험장, 가장 성스러운 청춘대학이었다. 나무 한그루, 바위 하나도 무심히 대할수 없는 백두산기슭에서 《살판공이 찰스는 힘찬 산중에 걸심품고 싸우려는 우리 혁명군》이라는 혁명가요구절도 자기의 체합으로 불리고 백두대지의 청춘대기비비에 자기 피땀을 짙은 주추를 한개라도 쌓아보아야 백두의 칼바람을 아는 청춘이라고 시대에 맞먹어 인정받을수 있다.

당의 호소에 화답하여 《가리라 백두산으로》노래를 부르며 청년돌격대에 탄원해온 수천명의 청년들중에는 한때 인생길을 잘못 택했던 청년들도 있었다. 백두산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자, 이런 각오로 숙련공에서 탄원해온 청년들로 조직된 평안남도려단 2대대 2소대에 있는 돌격대원이 아닌 한 어머니가 숙해있다. 김광일소대의 어머니인 김순희녀성, 그는 백두산에서 새 인생의 출생증을 받았다고 동료들과 함께 떠난 아들들에서 자식을 잘못 키운 어머니의 죄스러움도 함께 맺고 싶어 소대의 어머니가 되었다. 소대의 축산을 맡아 하면서, 수십명 자식들의 위바라지도 하면서 어머니는 그야말로 남보다 늘었다. 잘못 산 인생을 보충한다고 하면서 남들보다 몇 갑절 더 힘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자 몸을 부시는 그애들을 보면서, 혁명가요를 섹씩 하게 부르며 오고자 하는 청춘들이 소리를 내는 젊은이들을 대하면서 어머니는 갑작했다.

《날이준 이 어머니도 바로잡아주지 못했던 아들이 여기 백두산에서 풍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당을 어머니로 부르는데 제 귀머리 댕기여야 특목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애들의 모든 어머니들을 대신해서 우리 원수님께 삼가 큰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두산은 자기 품에 한번 안으면 그가 누구든 칼바람에 다스리려고 천지물에 씻기는 쇠소리나 황인간으로 키워 내세워준다. 칼바람맛, 천지물맛, 풀뿌리맛을 모르는 사람, 백두산길을 등산길처럼 생각하고 오는 청년들에게 백두산은 그 신성한 품을 내주지 않는다. 여기 청년돌격대원들이 수행경사승위, 김정일애국주의, 자력갱생과 격사전열, 혁명적동지애와 집단주의, 혁명적락관주의, 이 다섯가지 학과목에서 최우등을 해야 백두청춘대학 졸업증을 받을수 있다고 해 위하는 말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건설장과 병실마다 수줍처럼 나뭇기는 청년돌격대의 붉은 기발들중에는 한쪽의 청년은 소대기장이었다. 《인정철소대!》 혁명의 붉은기와 더불어 오늘도 백두청춘들속에서 영생하는 삶을 우리는 평양시려단 대원이었던 원정철동무, 발전소건설의 나날 뜻밖에 조성된 위급한 정황속에서 그가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되기도 이제는 10년이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가 일하던 소대를 《원정철소대》로 명명하도록 하여주시고 희생된 그에게 생전에 그처럼 소원했던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정치적명예도 안겨주시었다. 아들의 붉은 당원증을 눈물속에 받아안은 영광의 자리에서 그의 어머니가 미친 심장의 고백은 무엇이었던가.

《정철아, 이 어머니는 너에게 육체적생명을 주었지만 우리 당은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었구나!》

당장전 일흔둘까지 발전소완공의 목표를 내걸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공적전이 벌어 지던 지난 120여일의 나날 그의 이름이 새겨진 소대기발은 언제나 대대와 려단의 앞장에서 휘날렸다. 대오앞에 휘날리는 그 붉은 기발의 세찬 퍼덕임소리와 더불어 수많은 《인정철》들이 우후죽순처럼 배출되었다. 발전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은 9월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기공예술훈남대원들의 공연 《백두청춘들끼리 부르는 신념의 노래》를 보아주시었다.

백두산의 청년돌격대원들에게서만 찾아 볼수 있는 고결한 사상정신적정도를 감명깊이 보여준 공연을 보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는 눈가에 눈시울을 가져가시었다. 만사람을 울린 구어아가 《백두청춘대라 성적》은 평양시려단 대원이었던 김춘남동무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의 값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

8년전 1호발전소 물길굴착장전투의 나날 봉락되는 돌을 환목으로 막아 동지들을 구원한 그는 하반신마비라는 치명적인 진단을 받고 돌격대에서 제대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언제나 백두전기를 안고 살아온 그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를 받아안고서는 청상애만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지난 5월초 인애와 함께 발전소건설장에 달려온 그는 하반신마비의 불편한 몸으로 청년돌격대원들이 일하는 전투장을 순회하며 힘있는 경제선동활동을 벌려나간것은 완공의 그날을 끝내 보지 못하고 심장의 고통을 멈추었다. 희생된 그의 품속에서 나온 보폭이 인신선동들의 헌구절을 김춘남동무의 목소리를 빌어 우리 여기에 적는다.

《동무들! 귀중한 나의 동지들! 저는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동지들과 똑 같이 건설장을 달려와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고싶은 마음입니다. 동지들에게 제가 부락 하고싶은것은 제 몸까지 합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충정의 보물을 올린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달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원수님의 인정을 바라면서 인애와 함께 《불라는 소원》,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준공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온 천수물이 들썩하도록 진행된 군민청년대합창공연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은 《민중의 기쁨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쓴다》로 시작되는 《적기가》와 함께 바로 그 잊을수 없는 명목으로, 김춘남동무가 부르던 《불라는 소원》노래로 공연의 마지막메이러를 울렸다. 백옥은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다.

백두청춘의 영원한 벗이 되어 사랑하는 동지들과 용장한 인재를 굽어보며 김춘남동무가 오늘도 절절히 부르르고있는 그 노래를 돌격대원동행이 따라부르고있다. 1호발전소 우안언제리탑공사장 희생된 황해남도려단의 김신정동무의 빈자리는 그의 너동생이 채웠다.

형제와 자매, 부부와 부자들들대원들도 여기에 적지 않다. 성, 중앙기판대대의 장충실새쌍둥이를 비롯한 60여명의 형제, 자매, 남매들도 있고 보합한 건설장에서 사랑을 맺은 20여명의 부부도 있었다. 평안북도려단 려단장 박원근동무의 안해 강옥희녀성은 벌써 몇해째 돌격대에서 살다시피 하며 려단의 어머니로 존경받고있다.

단란한 가정의 행복도, 사랑도 성스러운 위업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돌격대의 후방가족들, 지금 이 시각도 백두산으로 떠나간 아들딸들과 남편을 생각하며 한가지 또 한가지 애정을 담아 지원물자를 마련해가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어머니들과 안해들에게 우리는 삼가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고싶다.

###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주제가 무엇인가 묻어보면 돌격대원 누구나 이렇게 대답할것이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현지지도소식과 함께 세상에 알려진 이 명목은 잊을수 없는 4월의 그날부터 사실상 시대의 주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흥동한 시대의 명목과 더불어 백두산의 영웅청년발전소가 우리 당과 혁명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달라졌다.

이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도 유서 깊고 성스러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의 한 부분, 한 로정으로 되었다. 삼지연군을 비롯한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에 전기를 보내줄 발전소의 용자만이 희한한것이 아니다. 인민군군인들이 가구비품은 물론 빨래와 눈가래, 살태기도 갖추어주고 러발에 겨울날까지 심어놓은 멧장어살림집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한그루 또 한그루 10여년세월 정성다써 심어준 나무수술도 하여 발전소지구는 벌써 새, 별천지,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신경, 새 풍경으로 전변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새 살림집의 입사증을 받고 너무 감격에 겨워 말 한마디 못하던 유정림선사업소의 순박한 로동자의 모습도 떠오른다. 발전소에서 팽팡 부는것은 밝은 전기불빛으로 하여 황혼한 불야경을 이룰 삼지연에서 인민들이 목매어 헤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 소리가 이곳까지 메리쳐오는듯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항일혁명투사들의 절절한 넋대로 이 땅이 사회주의락원으로 날아가 전변되고 백두산기슭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지만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이 현실로 꽃피게 되었다. 이 못지 않게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을 더없이 기쁘고 만족하게 한것은 바로 성스러

다고싶다.

백두청춘대학의 최우등졸업증, 백두전역에 배낭을 곬었다고 하여, 백두의 풍기와 물을 마시고 발전소건설장에서 흙 몇삽 댔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수 있는 증서가 아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불면하신증으로 힘찬 길을 헤치시며 다녀가신 이곳, 우리 원수님께서 백두산에서 내리시는 길로 찾아오신 이 땅, 항일선렬들의 넋이 전하게 스며들어있는 이 대지에 피땀을 흘리고 청춘시절과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친 사랑의 땅이 받아안을수 있는 청년혁명가의 가장 신성한 증서이다.

우리 혁명앞에 난관과 시련이 막아나설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스스로 찾아와 인생의 첫출발을 때고 백두대지에 애국의 삼을 막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며 청춘대학졸업증을 받은 청년들이 기쁨으로 서있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청년들이여, 우리모두 심장에 새기자.

은 백두산기슭에서 청년강국이라는 위대한 시대가 태어나고 백두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끝끝없이 미려한 청년들의 핵심부대가 성장한것이며 우리 시대 청춘들의 무명과 삶의 기지와와 같은 새로운 정신과 문화가 창조된것이다.

얼마후이런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게시었던 발전소의 전망대가 위치하고있는 곳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잡은 청년들의 위훈전시관으로 소문날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이 문을 활짝 열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소 참석하시어 력사적인 연설도 하시고 준공에도 참석하신 그날에, 웅장한 언젠을 배경으로 하여 공화국역사에 없었던 군민청년대합창이 하늘땅이 들썩하게 울리고 희한한 축복과 언제우에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던 그날에 인민은, 세계는 신군조선, 김정은조선의 가장 위대한 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았다.

장하다, 청년들이여! 당장전 일흔둘에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선물을 마련한 청년돌격대원들이여,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진정한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

뜻깊은 9월 현지지도의 날에 우리 원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기념비적 창조물머리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 부는것이 수없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70년 력사속에는 청년중시사상의 력사,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 창조자의 거인으로 키운 력사가 응축되어 있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위대한 생활력과 그 힘있는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직접 체험한 당중앙위원회 일군인 민승철동무의 이야기가 우리의 뇌리에 지금도 메아리를 울려준다.

《일찌거 아버지수령님께서 해주-하성간 철길건설로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주인공으로 키워주시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청년영웅도로건설로 21세기 청년전위들을 강철로 버려주시었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기 백두전지에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돌격대로 나설 청년정예부대를 탄생시켜주시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청년운동명도사의 위대하고도 불변할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두산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주체혁명위업결승의 위대한 새 력사, 조선청년운동의 장엄한 새시대의 탄생을 직접 체험한 영광과 행운을 한층도록 잊지 않을것입니다.》

백두의 행군길이 끝나지 않은것처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투쟁의 길도 끝나지 않았다. 다듬어 청년절까지 3호발전소 건설을 끝낼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받아안은 돌격대는 용기백배, 기세충천히 새로운 전기를 차지하였다.

무서울것이 없고 두려울것이 없다. 승리는 또다시 그들의것으로 될것이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피땀으로 창조한 고귀한 혁명정신, 투쟁정신이 있었다.

공공의 날의 력사적인 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귀중한 새로운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가 창조되었다고 온 세상에 선언하시었다.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선군청년문화! 원수님께서 서게시었던 발전소의 전망대가 위치하고있는 곳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잡은 청년들의 위훈전시관으로 소문날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이 문을 활짝 열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소 참석하시어 력사적인 연설도 하시고 준공에도 참석하신 그날에, 웅장한 언젠을 배경으로 하여 공화국역사에 없었던 군민청년대합창이 하늘땅이 들썩하게 울리고 희한한 축복과 언제우에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던 그날에 인민은, 세계는 신군조선, 김정은조선의 가장 위대한 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았다.

장하다, 청년들이여! 당장전 일흔둘에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선물을 마련한 청년돌격대원들이여,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진정한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

뜻깊은 9월 현지지도의 날에 우리 원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기념비적 창조물머리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 부는것이 수없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70년 력사속에는 청년중시사상의 력사,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 창조자의 거인으로 키운 력사가 응축되어 있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위대한 생활력과 그 힘있는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직접 체험한 당중앙위원회 일군인 민승철동무의 이야기가 우리의 뇌리에 지금도 메아리를 울려준다.

《영웅청년위훈전시관, 《영웅청년기념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게 하라. 누구나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어디서나 영웅청년돌격대의 영광을 지나라. 강성국가건설대전의 모든 전선과 전구들을 용맹과 악동, 위훈으로 필멸 끝는 청년관으로 만들자.》

우리 당의 미려한 동지, 전우들인 청년들이여! 혁명의 성산, 영웅청년신화의 성산 백두산이 그대들을 부르고있다. 힘겨울 때면 《가리라 백두산으로》노래를 부르며 여기로 오시라. 백두의 칼바람도 맞아보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아스라한 언덕우에서 내 조국의 미래도 굽어보시라. 그러면 평범하게 생각했던 그대의 심장속에서 또 명장의 용기가 용솨출치리라. 백두의 칼바람에 뿔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머리시!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자!

조선청년운동력사에 가장 빛나는 위훈의 대기기념비를 세우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장전 일흔둘에 가장 큰 승리의 선물을 드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을 우리 당은 한회로운 10월의 제일가는 주인공으로 내세워 주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 당은 줄수 있는 모든 영광,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우리 청년들이 서로서 동지의 팔을 끼고 전우의 어깨를 걸고 혼연일체의 생세를 이룬 그 모습에서 세계는 특목히 알게 되었을것이다. 조선로동당과 청년들의 관계, 조선로동당의 70년 력사에서 위대한 청년운동명도사가 차지하는 지위가 어떤것인가를, 내 나라의 제2의 애국가와도 같은 《조국찬가》에 《악돌격대의 위훈을 굽을없이 평가하시면서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로의 전열에 내세워 강성국가의 문제를 넘넘히 달고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고, 청년들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용감 떨쳐나 청년이라는 이름과 함께 불리우는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우므로써 인생에 한민박에 없는 귀중한 청춘시절을 한평의 후회도 없이 빛내여나가고자 일렬히 호소하시었다.

500만 청춘들이여, 오늘날 당과 조국을 위하여 그대들이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조국보위조소와 사회주의건설, 공작과 전야, 푸른 산과 황금해에도, 최첨단물과전과 우주정복의 길에도 청년들의 힘과 용맹, 지혜와 슬기가 더없이 필요하다. 우리 대에 반드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워야 할 력사적과제가 바로 그대들, 청년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정신과 생활기풍으로 살며 싸우자. 백두산의 청년들의 돌격정신과 문화를 따라배우자.

위대한 김정은시대 청춘탑에 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힘과 지혜, 용맹과 슬기를 마음껏 떨치라. 이 땅 그 어디에나 《영웅청년발전소》, 《영웅청년위훈전시관》, 《영웅청년기념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게 하라. 누구나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어디서나 영웅청년돌격대의 영광을 지나라. 강성국가건설대전의 모든 전선과 전구들을 용맹과 악동, 위훈으로 필멸 끝는 청년관으로 만들자.》

우리 당의 미려한 동지, 전우들인 청년들이여! 혁명의 성산, 영웅청년신화의 성산 백두산이 그대들을 부르고있다. 힘겨울 때면 《가리라 백두산으로》노래를 부르며 여기로 오시라. 백두의 칼바람도 맞아보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아스라한 언덕우에서 내 조국의 미래도 굽어보시라. 그러면 평범하게 생각했던 그대의 심장속에서 또 명장의 용기가 용솨출치리라. 백두의 칼바람에 뿔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머리시!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자!

글 본사기자 김경섭  
본사기자 김진수  
본사기자 리병준  
사진 본사기자 김중훈



청년강국

백두청춘

